

전통의 현대화를 통한 도자공예 연구

: 작가의 작품과 전시 사례를 중심으로

민 세 원 (국민대학교 조형대학 도자공예학과 강의전담 조교수)

I. 서론

II. 전통을 현대화한 작품 양상 : 작가를 중심으로

1. 제작기법의 계승
2. 공예적 요소
3. 표현의 확장
4. 재료의 확장

III. 전통의 현대화를 위한 전시사례

1. 국내전시
2. 해외전시

IV. 결론

I. 서론

최근 들어 현대도예계에서는 전통을 재해석한 전시와 작품들을 자주 접하게 되며 또한 전시가 기획되어 주목을 받고 있다. 해외에서도 한국의 전통적인 도자기와 공예에 관심이 많고 젊은 작가와 장인의 만남으로 새로운 작업을 시도해보기도 하고 공예의 대중화를 위해 여러 기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음식분야에서도 도자의 활약을 볼 수 있는데, 한식의 세계화로 인해 유명호텔의 디너 한식코스는¹ 스토리텔링(story telling)을 바탕으로 한 정식이 고가에 선보여서 미식가들에게 기쁨을 주고 있다. 코스요리에 사용된 식기는 유명작가의 작품으로 음식 맛을 살릴 뿐 아니라 하나하나가 도자유물에 가까울 정도로 한국 도자의 미를 엿 볼 수 있다(도1).



도1 이종국 세프의 음식과 작가 이세용의 그릇, 조선호텔, 2014년

또 올 1월에 방송된 SBS스페셜 <이영애의 만찬>은 배우 이영애가 이태리 피렌체로 가서 한식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한식코스요리에 있어 음식을 담는 도자기가² 음식과 함께 눈을 즐겁게 해주었다. 특히 마지막 요리인 비빔밥에서는 큰 대접에 여러 재료를 넣어 외국인들이 직접 버무리는 장면이 연출되어, 음식문화를 떠나 비비는 행위를 퍼포먼스로 승화시키고 나눠먹으며 소통하고 음식에 대한 스토리를 담아 문화적인 접근을 시도하여 외국인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러한 음식문화 및 공예문화의 국외 소개는 궁극적으로 한국 고유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일종의 문화 콘텐츠(contents) 사업의 일부라고 볼 수 있다. 미래

¹ 이종국세프의 음식과 이세용 작가의 그릇, 조선호텔이 100주년을 맞아 준비한 갈라 디너이며 '100년을 열어 손님을 맞다'는 이름의 정찬을 세 차례, 회당 60명으로 제한했지만 인원을 넘길 정도로 좋은 반응이었다.

² 이 프로그램에서 소개된 그릇들은 작가 이능호의 작품이었다.

학자들은 21세기를 ‘컬덕의 시대’라고 예고했다. ‘컬덕(Cult-duct)’은 문화(culture)와 제품(product)의 합성어로 문화융합상품을 뜻한다.³ 이런 합성어가 탄생된 것은 그만큼 문화가 화두가 되고 중요시 되어 발전시켜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도자기를 포함한 공예와 한식 등은 하나의 문화상품으로서 충분히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문화는 그 나라의 정신이요, 생활양식이다. 과거부터 내려오던 것과 그 시대성을 반영하여 변화되는 것들이 있다. 현대는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어 그 나라의 특징이 모호해지고 있다. 이런 세계의 균일화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이 공예에는 있다.⁴ 특색 있는 공예야 말로 그 나라의 상징이고 고유한 문화적 취향을 잘 엿볼 수 있다.

어떤 집단이나 공동체에서 오랫동안 이어져 내려오는 사상, 관습, 행동 따위의 양식樣式이나 그것의 핵심을 이루는 정신을 전통이라고 하며 이러한 전통은 역사적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 현재생활에 의미와 효용이 있는 문화유산으로 남아있다.⁵ 이 같은 사상과 문화적인 요소인 공예가 조우한다면 반드시 특별한 그 나라 고유의 독특한 미와 전통, 사상을 보여줄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우리의 옛 도자문화는 일찍부터 우수성을 인정받았지만, 과거 정체되었던 시기도 있었고 변화 없는 전통으로 우리에게 조차 어렵게 느껴지기도 했고 전승, 전통도자와 현대도예의 분리로 발전시키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 근래에는 시대에 맞게 변화하는 움직임과 새로운 시도 등 전통을 트렌드에 맞게 현대화한 디자인이나 재해석한 작품들이 국내전시와 해외에서도 소개되어지고 주목과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따라서 필자는 본 논고를 통해 전통을 재구성한 작가들의 작품을 유형별로 나누어 특징별로 소개를 하고, 그 밖에 새로운 시도를 하는 작가들도 정리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전시는 최근 동안에 기획 전시되어진 국내와 해외전시회로 나누어 그 전시의 종류와 특징과 경향을 살펴볼 것이다. 소개된 작가들의 작품과 전시활동이 공예의 세계화를 통해 한국도자공예의 우수성을 알리고 나아가 전통적 미의식속에 담긴 조상의 여유와 감각이 우수한 도자를 문화적 콘텐츠로서 설득력 있게 전달되기를 기대한다.

3 김선권, 〈컬덕을 만들자〉, 『중앙일보』, 2014, 6월13일, B10쪽.

4 최범, 『공예문화비평』, 한국공예문화진흥원, 2008, 80쪽.

5 『국어사전』, 민중서림, 2301쪽.

II. 전통을 현대화한 작품 양상 : 작가를 중심으로

이번 장에서는 작가의 작품을 유형별로 나누어 표현하는 방식에 따라 나누어 보고자 한다. 작가들의 다양한 경험과 배경으로 현대적으로 재구성된 작품들을 알아보고 거기에 사용된 기법, 다루는 재료, 접근방법, 기존 도자기작품과는 다른 파격적인 시도 등 다양한 양상을 볼 수 있다.

1. 제작기법의 계승

기법은 작품제작에 있어서 필요한 과정이며 작가들 나름의 기술적 비법이 있어서 그들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같은 기법이라도 작가의 해석에 따라 다르게 표현 될 수 있다. 기법은 주로 전승되어진 것도 있지만 전통을 기반으로 시대에 맞게 변화함으로서 과거의 기법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작가의 창의적인 생각과 의도로 제작된다.

전통기법 중의 하나인 연리문⁶을 좀 더 응용되어진 본인만의 비법으로 작업하는 작가 노경조는 연리문의 특징인 여러 흙을 섞어 문양을 만들고 형태는 조선시대 목가구를 연상하는 사각 형태에 귀나 풍혈장식을 한다. 특히 그는 고려시대의 기법을 활용해 화려하진 않지만 깊이 있는 색감과 한국적 감성이 느껴지는 현대적인 기⁸의 형태를 제작한다(도 2). 그의 작업은 대영박물관을 비롯한 많은 해외박물관들의 소장품이 되어있다. 백자의 순백색에 현대적 조형감각으로 기의 형태가 연상하는 작가 이기조는 기존 형태에서 벗어나 사



도2 노경조, 연리문기, 30x30x23cm, 2003년

⁶ 연리문자기는 8세기 당의 삼채기법을 응용한 것으로 청자토, 백자토, 흑자토를 각각 반죽한 후 섞어 그릇을 빚으면 마치 나무결 같은 무늬가 자연스럽게 표현되는 데 이를 연리문이라고 한다. 강격숙, 『한국도자사』, 예경, 2012, 199~200쪽.

각형의 형태에 질감을 더해 현대적인 백자를 재탄생시켰다.

윤주철은 분청사기 기법 중 귀얄 기법을 재해석한 침장 기법⁷을 사용하는데 ‘백토를 분장하는 것’에서 출발한 침장기법은 흙물의 점성을 이용한 분장기법이다. 기법의 돌기성형은 흙물을 바르는 과정과 건조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여 퇴적층을 형성하는 것으로 흙물의 퇴적현상을 이용한 장식기법이다^(도3).⁷ 흙물의 점성과 붓의 방향등 여러 실험을 통하여 작가는 다양한 돌기형태와 색을 사용하여 재료적 특성과 장식적인 것을 연구하고 있다.



도3 윤주철, 침장140125, 20x20x23cm, 2014년

한편 이강효, 최성재, 허상욱, 정재효는 분청사기를 작업하는 작가들인데, 우선 이강효는 타렴을 만든 후 두드려서 만드는 옹기제작 방식과 분청사기기법을 결합하여 본인만의 방식으로 작업을 한다. 이미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인데 화장토를 흠뿌리기도 손바닥과 손가락을 이용하여 닦아내거나 드로잉하는 등 즉흥적이고 무작위적인 방법으로 인하여 바탕흙(태토)이 화장토와 뒤섞여 미묘한 색감과 표정을 연출하기도 한다.⁸ 최성재는 활달하고 자유분방한 크로키형 분장이며 최근에는 추상적 산수화층의 표현이 주가 되고 귀얄분장의 즉흥적 제스처가 전면에서 극대화된 형식의 작업에 몰두한다.⁹ 정재효는 분청의 박지기법을¹⁰ 현대적으로 해석해서 표면의 질감을 강조한 작품을 여러 전시에서 볼 수 있었다.

특히 분청에서 백자까지 다양한 소지를 사용하고 박지기법과 상감기법을 이용해서 자신만의 패턴과 스타일을 만든다. 전통적인 것을 따르지만 특징적인 것은 분장 후에 굽어낼 때 나오는 칼자국은 거칠면서도 리듬감이 느껴지고 그것 자체만으로도 또 다른 문양을 만들어 낸다^(도4). 박지기법을 활용한 또 다른 작가 허상욱은 기법으로 모란문을 자주 사용하면

7 윤주철, 「도자표현을 위한 장식기법의 개발연구」, 단국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ii쪽.

8 『한국공예의 범고창신』, 한국공예문화진흥원, 2014, 27쪽.

9 최성재, 「절제된 무형의 형식-분청만의 나쁜 패턴 속으로」, 클레이파크 참조.

10 박지기법은 백토분장 후 원하는 문양을 그리고 이의 배경이나 문양부위를 백토로 굽어냄으로써 백색과 회색바탕과의 대비효과가 잘 나타난 기법이다. 강격숙, 『한국도자사』, 예경, 2012, 327쪽.



도4 정재효, 백자청화박지선문합, 13.5x12.5x7cm, 2009년

서 흙 자체의 색과 백화장토의 색채대비로 편안하고 자유롭게 표면을 채운다. 조선의 목가구에서 비례감을 배우고 건조도나 굽어가는 과정, 태토의 색 등 작업과정의 변이에 따라 다양한 분청사기가 나온다. 김규태는 동(銅)을 백자에 환원소성하여 진사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작가이다. 현대적 감각의 형태에 진사유약을 매치하여 강렬한 느낌을 준다.

그밖에 달항아리 제작기법인 엽다지기법을¹¹ 주제로 전통을 재해석한 박종진은 소성 후 상하를 접합함으로써 기존에 제작방법과는 다른 변용된 기법을 활용한다. 즉 소성 전 접합이 아닌 소성 후 접합으로 분리된 형태를 유약과 불로 접합하여 하나의 형태를 이루도록 했다.¹²

2. 공예적 요소

실생활에서 사용될 수 있는 기능적인 요소가 강한 생활자기를 말하며 소개할 작가 및 작품들은 공예의 기본적인 요소 즉 쓰임에 충실한 작품들이며 물레나 캐스팅기법 등 다양한 성형기법을 활용한다.

고정은은 흙에 레이스를 롤러로 밀어 도판을 만들고 옷감을 재단하듯 잘라서 저그, 컵, 주전자를 제작하는데, 레이스의 질감을 청자에 접목시켜 여성적인 섬세함과 흙의 표면에서 느낄 수 있게 한 작가이다. 레이스를 활용한 또 다른 작가인 나예선은 조선의 여인이 사용하였던 화장용기를 주제로 물레의 형태에 현대적 레이스를 음각으로 찍어 여성적인 취향을 더욱 나타냈고 자연친화적인 용기로 제작했다. 현재는 식기뿐만 아니라 패키지에도 도자기를 사용하는데, 그 좋은 예로 iF 디자인어워드에서¹³ 패키지부분에 도자기가 주목받았다. 패키지로 사용한 도자기는 수분증발을 막고 외부기온으로부터 보호하며 신선한 상태로 보존해

¹¹ 엽다지 기법은 조선백자항아리 제작기법으로서 상하접합기법, 합구기법 등으로도 불린다. 과거 큰항아리 제작 시 두개의 발을 엮어 붙여 원형의 항아리를 제작하였는데, 당시 기술적으로 해결되지 못했던 큰 기물의 물레성형을 자유로운 발상과 철학적인 사유를 통해 해결한 기법이다. 형태의 어눌함이 오히려 철학적 가치를 높인다고 생각할 수 있는 한국인 특유의 여유를 보여준다. 박종진, 「엽다지기법을 응용한 도자조형 연구」, 국민대학교대학원, 2008, 1쪽.

¹² Ibid, 18쪽.

¹³ International forum, 61년 전통의 독일디자인 공모전, www.ifdesign.de 를 참조.



도5 유아리, 도자용기, 17.5x17.5x5.5cm, 2013년

주며 사용 후에는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으로 도자기의 또 다른 가능성을 보여주는 예이다.

유아리는 화장용기와 합이라는 주제를 기하학적으로 세련되게 표현했고 기존의 합의 형태를 탈피하고 색과 문양은 전통을 변형하였다(도5). 조선의 여인의 이미지를 슬립

캐스팅으로 만들어 조명이나 합 등으로 제작하는 작가 김성주는 한복의 주름과 여인의 얼굴 등을 섬세하게 표현한 작가이다. 고희숙은 백자의 순백색을 살려 캐스팅 후 물레 위에서 전부분을 마무리 하여 두 가지 기법을 접목시킨 생활자기 작가이다. 조 다니엘은 디자인에 가까운 대량생산방식의 식기나 주전자¹⁴ 생산하며 기업과 협업을 통한 작업을 주로 한다.

또 다른 캐스팅 작가 윤상중은 한국적인 소나무의 잎의 질감을 컵에 나타내어 캐스팅한 작업으로 한국의 대표적인 소나무 이미지를 느낄 수 있다. 기존의 백자의 이미지는 유약의 광택이 있어 매끈한 것으로 연상이 되지만 이 컵은 사용자가 질감을 만져보면서 쓸 수 있게끔 무시유^{無施釉}로 제작했고 촉감을 통해 소나무의 기와 정서적인 면을 느낄 수 있다.

이능호는 앞서 말한 한식의 세계화 방송에서 쓰였던 식기작가로 양구지방의 백토를 직접 퍼낸 흙에 도구는 직접 소나무를 깎고 자연에서 영감을 얻은 문양과 패턴을 새긴 도구로 전통용기 제작 방법으로 두드러서 형태를 완성한다. 질감들이 도드라지지도 않지만 살짝살짝 보이는 질감과 수비가 덜되어 철분이 섞인 백토가 조화를 이룬다. 속파기 제작기법으로 기울어진 합 모양도 제작한다. 손경희는 화조화^{花鳥畵}와 전통문양을 도자표면에 양각으로 새기고 고온안료로 채색하는 작가로 여성적인 섬세한 손에서 한뼘 한뼘 수를 놓듯이 그릇들을 생산한다. 조선여인의 단아함과 편안함이 느껴진다. 이세용은¹⁵ 청화안료로 꽃, 나무, 새, 강, 산, 곤충 등의 자연 소재를 도자기에 장식하는 작가이다. 그는 그릇을 비울 때 마다 그 안에 또 다른 세계가 있고 그릇에 그려진 그림은 일상생활에 가장 가까이 느끼는 예술이라는 것이

¹⁴ 작가는 오설록과 협업으로 다기세트를 디자인했고 그 외에 Kyoei-design의 협업으로 수면 위의 구슬이 시간과 함께 움직이는 시계도 디자인 했다.

¹⁵ 이세용은 이세용도예연구소와 인사동에서 개인샵을 운영하고 있다.

그의 철학이다. 그는 식기를 비롯해 오브제까지 작업의 영역이 폭 넓다.

이창화는 찻그릇부터 기하학적형태의 접시와 인테리어선반-‘캐논’까지¹⁶ 다양하다. 그 중 물레 성형한 백자 주전자와 기하학적 형태의 손잡이에 청화를 입힌 주전자는 대표작이라 할 수 있다. 그 주전자 안에서 몸통과 손잡이 자체가 시각적 대조를 이루며 현대와 과거가 함께 공존한다.

3. 표현의 확장

작품을 표현하는 방법 중 기법이나 기능적인 요소 이외에도 작품을 개념적으로 접근하여 풀어나가는 것을 말하며, 자유로운 방식으로 폭 넓게 시도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작품에 접근하는 방식이나 표현방식, 변형을 통해 새로운 시도를 하는 작가 중 유의정은 문화변용을 소재로 동시에 서로 다른 문화를 접하면서 오는 문화형태의 변화와 새로운 정체성에 대해서 풀어내는 작가이다. 전통과 현대, 아날로그와 디지털, 동양과 서양, 과거와 미래, 토속신앙과 물신주의 등이 복합적으로 공존하는 지금 우리문헌의 모습은 당연한 결과이다. 그는 “과거와 단절이후 시간의 연결이 어렵고 나의 작업은 과거로부터의 그 모호한 연속성 때문에 동시대를 살아가는 입장에서조차 수 백년 전의 도상을 차용하게 되는 것이다. 어쩌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만들고자 하는 것 일지도 모른다.”¹⁷ 라고 설명 했듯이, 그의 작품 〈청자상감운학미키문매병〉은 매병형태와 상반된 서양캐릭터인 미키마우스를 장식함으로서 대조되는 문화코드를 표현했고, 이 두 가지의 이질적 결합을 통해 변용을 통한 시대성을 보여주었고 혼성



도6 유의정, 청자상감운학미키문매병, 2011년

¹⁶ 2013년 여주의 반달미술관 〈한국의 생활도자 100인전〉에서 도자로 선반을 제작하고 제목을 ‘캐논’이라 했다.

¹⁷ 『Hot Rookies』, 도자재단, 2013, 185쪽.

과 열린 문화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도자조형의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도6).¹⁸

또 다른 <청자상감운학문매병>을 주제로 한 <트레이싱 드로잉68>은 주세균의 작업으로 그는 변형과 모방을 이용해 작업하는데 모방은 자료조사한 도자기유물사진을 성형한 초벌백자위에 트레이싱지를 이용하여 연필로 그리는데 도자기 자체는 입체이기



도7 이은범, 버블볼, 45x36x22cm, 2013년

에 트레이싱지가 완벽히 커버된 부분 즉 정면만 재현이 가능하다. 연필로 그려서 묘사된 부분과 안그려진 부분사이에 간극을 생각해 보는 계기를 주고 있으며 객관적 사실과 주관적 사이의 경계를 생각한다. 현대사회에서 정의(Definition)의 기준의 근거가 혼란스럽고 변하고 그런 가변적인 성질을 이용하여 작가는 작업을 하고 그런 보편적인 것과 변하는 현대사회의 모습, 그것에 집착하는 자아를 표현하고자 한다.¹⁹ 이승희는 유명도자유물을 평면으로 재현하는 작가이다. 흙물을 여러 번 바른 다음 두께가 생기면 입체감이 나도록 표면을 깎고 거기에 백자나 청화를 재현한다. 전통적인 도자기를 새로운 평면회화로 바꾸어 2차원도 3차원도 아닌 모호함에 관람자가 호기심을 갖도록 유발한다.

이은범은 청자의 기본 형태에서 벗어나 물방울을 연상하게 하는 버블시리즈를 기의 형태로 풀어나가는 작가이다. 전통청자가 아닌 현대인의 생활공간에 어울리는 형태와 문양의 변화를 시도하여 여러 개의 물레형태를 자르고 조합해서 하나의 기로 제작을 하고 겉 표면은 상감으로 장식했다. 유약은 청자빛이지만 형태는 볼록볼록한 비눗방울처럼 무언가 또 다른 형태가 생겨날 듯 거품이 부풀어 오르는 느낌이 나는, 현대적인 형태로 기존에 청자이미지와 상반된 현대적 감각으로 표현되었다(도7). 작가는 청자의 색을 위해 강진에서 전통적인 제작 방법을 연구하여 다양한 청자 색감의 표현이 가능하다.

¹⁸ 유의정, 「문화변용을 소재로한 도자조형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9, 27쪽.

¹⁹ 『Hot Rookies』, 도자재단, 2013, 41쪽.

4. 재료의 확장

흙이라는 재료이외에 작품을 더 부각시키기 위해 타 재료를 사용한 예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런 현상은 타 재료의 적극적인 사용을 위하여 그 분야의 장인과 작가와 만남을 통하여 새로운 시도도 하고 있어 앞으로 많이 기대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올해 4월에 박여숙화랑에서 개인전을 가진 이현정은 옷칠과 나전이라는 소재를 사용하여 기존 오브제적인 작업과 칠이라는 전통적인 기법을 혼합해서 유약에서 볼 수 없는 광택과 색을 표현하였다. 칠에서 표현된 빨강색과 유약의 결합은 낯설면서도 이국적인 느낌이 든다. 슬립캐스팅 작업을 주로 하는 김하윤은 완성된 도자기 위에 장인과의 협업으로²⁰ 옷칠을 입혀서 그릇 표면을 장식적으로 부각시켰다.

칠 작업을 2000년 초반부터 시도한 작가 박종훈은 주로 찻그릇에 활용하는데 도자기에 금박, 옷칠을 하여 자기 보존력을 높이고 기존 유약위에 칠을 입힘으로서 색의 깊이를 만들어냈다. 도자기 위에 옷칠을 입히는 것을 도태칠기^{陶胎漆器}라 하며²¹ 금속에는 금태칠기라고 하는데, 또 다른 작가 임양숙은 청자나 백자에 칠을 하여 제작한다. 옷칠은 인체에는 무해 하면서도 강도가 높고 방부성, 내열성이 좋은 장점과 도자와 결합하여 특유의 광택과 단아하면서도 절제된 옷칠을 도자기에 입힘으로서 기존에 도자와는 색다른 느낌의 질감과 색감을 느낄 수 있다. 이정미는 백자에 옷칠을 입히는 작가로 기존 옷칠의 검은 계열의 색감과 다른 빨강과 초록의 밝고 화려한 색을 통해 유약을 입히는 고정관념을 넘어 친숙하게 전통적 감성을 전하고자 하였다. 몇 년전 (주)행남사에서 도칠상품이 생산되어 최고급예물과 선물용품을 한정판으로 생산했었다.

백자와 열선을 이용하는 작가 김경수는 분리된 형태와 형태를 열선으로 연결하여 하나의 기 형태를 제작하는데 몰데성형 후에 몸체를 분할, 분리, 재결합을 통한 형태의 변용을 통해서 새로운 기형^{器形}을 제작한다. 서로 다른 재료이지만 부딪침 없이 어우러지며 백자의 깊은

²⁰ 채화칠기 최종관 명장과의 협업으로 2012년도 공예문화진흥원에서 주최된 전통소재 융합스타상품개발프로젝트 이다. 공예문화진흥원홈페이지 참조.

²¹ 도태칠기는 흙으로 만든 기형을 1000-1200도에서 초벌 혹은 재벌한 다음 하지(下地)를 바르고 칠로 마감 한다. 기형이 접시인 경우는 전 후면에 유약을 바르지 않고 칠로 마감하며 목재소재로는 불가능한 자유자재로운 형태를 만들 수 있고 대량생산이 가능한 점이 장점이다. 권상호외6인 『공예재료와 기법』, 태학원, 2003, 269쪽.

맛을 타 재료가 돋보이게 하고 백자 형태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해준다(도8).

인현식은 수년간 백자로 전통적인 차와 차도구를 제작하는 작가로 섬세함과 백자의 미적인 부분을 기능적이면서도 깊이 있게 표현한다. 기존에 물레성형 된 잔 안에 은칠을 하여 고급스러운 느낌의 찻잔을 제작하는데 은은 시각적으로 고급스러울 뿐 아니라 살균효과와 은이온 효과로 맛을 순화시켜주고 무엇보다 녹색 차와의 색의 조화는 보는 것 만으로도 차의 향기를 느끼는 시간이 될 것이다(도9).²² 직접 작가가 금속손잡이 제작도 하면서 최근에는 특허상품으로도 등록을 하였다. 이러한 타 재료들의 사용은 작품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요소도 있지만 다루지 않던 소재이기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야 하며 완성도를 위해 전문가와의 협업도 효과적이라 볼 수 있다.



도8 김경수, frame work, 23.5x235x19.5, 2012년



도9 인현식, 이화뿔손잡이줄무늬다기세트, 2012년

III. 전통의 현대화를 위한 전시사례

전통을 바탕으로 하여 형태, 새로운 재료, 제작방법 등으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작가들이 재해석한 작품을 전시했거나 작가들이 속했던 단체 전시이며 제목이나 기획의도에서 오리엔탈이나 전통의 현대화를 바탕으로 한 전시로서 근래 기획전시 되었던 다양한 국내외 전시를 정리하여 보았다.

²² 인현식, 차인(茶人), 참조.

1. 국내전시

최근 통인화랑에서 전시된 〈Oriental Image-시대적 가치발견〉(2014.7.2~7.15) 라는 주제로 서울문화재단 예술창작지원 사업으로 기획되어 도자디자인협회 회원 33명이 참여하여 형태와 색을 통하여 오리엔탈적인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권오훈, 민세원, 윤남 등의 작가들이 각자의 색을 보여주는 전시로 캐스팅기법을 활용하여 우리 고유의 도자가 가지는 시대정신과 가치가 무엇인지를 풀어내고자 하였다.

공예문화진흥원에서 공예의 대중화를 위해 〈2014 공예플랫폼〉(2014.6.25~7.13)전이 ‘공예는 맛있다’라는 주제로 옛 서울역을 개조하여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든 문화역 서울 284에서 열렸다. 플랫폼은 서울역의 특성을 살려 전국을 이어주는 역할로서 제목을 사용했고, 지역적 특색을 담은 도자기와 공예작업을 한자리에 모아 놓은 것도 특징이었다. 중앙 홀에서는 오프닝에 퍼포먼스를 한 이강효작가의 영상과 작업을 시작으로 각각의 공간에 주제를 정하여 특색 있게 보여주었다. 기획1관에서 웨프 4인의 생각과 철학을 그릇의 셋팅으로 보여 주었고 음식영상은 좀 더 돋보이는 역할을 했다. 특히 기획2관 소통의 다실에서는 여러 작가들의 찻잔과 주전자, 차도구를 통해 차 문화를 소개하였다. 나무와 도자를 접목해서 만든 강석주작가의 기구가 다실의 공간에서 볼 수 있었는데 도자의 기본개념인 기의 개념을 떠나 기구로서의 확장된 개념으로 옛날식 반닫이를 선보였다. 한편으로 윤세호는 나무소재의 소반을 흙으로 만들어 소반의 역할과 크기를 축소시켜 그릇의 형태로 제작하여 신선함을 주었다(도10).

청자, 현대비색의 제목으로 지역관에는 김지영은 기존청자와는 다른 이미지로 어린이 식기를 연상케 하는 해학적 아동용 청자식기와 고정은의 청자레이스 주전자, 이은범의 오브제, 이동하의 향로, 유의정의 매병 등 그 외에 다른 작가들의 비색과 색의 조화를 볼 수 있었다.



도10 윤세호, 도자소반, 높이 30cm



도11 이혜정, 도자부채, 40x48x3cm, 2014년

주제관에서는 용기를 주제로 평소에 보기 어려운 고온의 푸레 용기도²³ 반갑게 볼 수 있었다. 외부에서는 오픈마켓도 열리고 전시된 작품을 직접 구입할 수 있고 대중들과 소통 할 수 있도록 열린 공간이 마련되었다. 기획3관 공예백화점에서는 132개의 공방에서 참여했고 도자를 비롯해서 다른 타 재료들의 대량의 공예상품들을 볼 수 있었다. 제목에서도 보듯이 대중에게 다가가기 위해 많은 시도를 하였고 굉장히 많은 수의 도자와 다른 재료의 작품이 지역적 특색을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는 좋았지만 서울역이라는 장소와 홍보의 부족 등 아쉬운 점이 있었다.

〈새로운 시각으로 본 청자전〉(2013.5.24~6.30)은 부안청자박물관 개관전시로 현대도예가회 회원특별전이 열렸고 99명의 도예가 들의 자유로운 발상으로 여러 종류의 청자작업을 보여준 전시였다. 부안은 과거 청자생산지로서 활발한 생산과 교류가 있었던 지역적 특색이 있어 이 전시가 의미하는 바가 크다. 이 전시에서 이혜정은(도11) 부채형태의 판에 청자의 실루엣을 선 상감으로 표현하였고, 그 밖에 다른 작가들은 청자인물상, 현대조형물, 청자토가 아닌 백색의 소지에 청자유약을 입히는 등 여러 제작기법을 보여주었다. 새로운 현대식 청자를 고려시대의 형태, 색, 용도를 인용하기도 하고 완전히 새로운 청자를 제작하였는데 특히 불교문화의 영향을 받아 화려하고 다양한 고려청자의 대표작인 〈청자투각칠보무늬향로〉를²⁴(도12-1) 여러 형태의 조합(semblage)의 형태로 재연한 맹옥재의 작업 〈Remake〉와 이동하의 〈향로〉가 형태적으로나 색으로 대조를 이룬다(도12-2).

〈분원백자순회전 II: 21세기 청화백자〉(2009.4.25~6.21)전은 경기도자박물관에서 기획된 조선후기 분원청화백자의 시대성과 다양성을 볼 수 있었고 현대작가들의 청화안료 사

²³ 푸레도기는 옛 왕실에서 저장, 발효 용기로 사용하던 도기로, 푸르스름하다'는 뜻을 지닌 순 우리말인 푸레를 따서 만든 용기이다. 푸레도기는 음식물을 저장했을 시 방부성을 높이며, 물의 정화능력도 뛰어나다. 푸레도기는 소금유로 만든 용기독이라고도 하는데 가마소성 시 소금을 투입하여 염화가스가 발생하고 그 가스가 용기표면에 접촉하면 색깔이 푸르스름하고 광택이 있어 반달반들하게 된다. 송재립, 『우리나라용기』, 동문선, 2004, 참조.

²⁴ 고려청자의 대표작인 명품 가운데 하나이다. 이 향로의 구성은 향이 빠져나가는 뚜껑과 향을 태우는 몸통, 그 리고 이를 지탱하는 받침으로 이루어진다. 각각 다른 모양을 기능적으로 결합하여 완성한 조형물로서, 표현 기법은 음각, 양각, 투각, 퇴화(堆花), 상감, 첩화(貼花)기법 등이 조화롭게 이용되었다. 국립중앙박물관소장.



도12-1	도12-2
-------	-------

도12-1 청자투각칠보무늬항로, 높이15.3cm, 고려 12세기, 국보95호, 국립중앙박물관소장
 도12-2 맹옥제, Remake, 24x24x32cm, 201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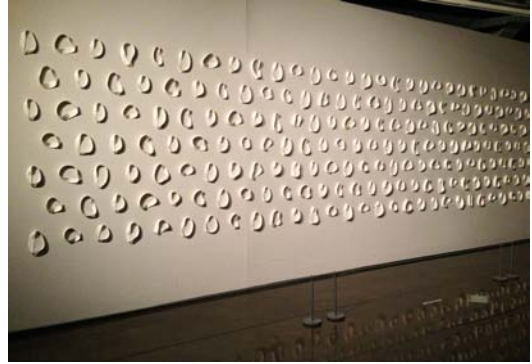
용방법을 통해 새롭게 재탄생된 청화백자를 볼 수 있었다. 13명의 작가가 여러 제작기법을 사용하였는데, 그 중 강석영, 권영식, 권오훈은 전통기법과는 달리 석고틀을 활용한 형태에 청화분장과 입방체형태의 전사무늬의 활용 등 현대적인 감각에 코발트안료를 사용하였고, 김규태의 진사위의 청화와 살짝 보이는 백토의 색을 통한 독특한 조합은 새로운 표현가능성을 제시한 전시이기도 했다. 진사와 청화는 언뜻 부조화스럽지만 사용면적의 비율을 조절하여 두개의 색을 균형있게 표현하였고 각진 형태와 어우러졌다.

청화진사는 중국의 유상채(釉上彩)기법에 자극을 받아 조선 후기에 유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유하채(釉下彩)를 고집한 조선백자 가운데서는 가장 화려한 자태를 보여주는 장식이다.²⁵ 또 분청사기 기법을 응용하여 백자청화 박지기법을 쓴 정재효, 허상욱의 백자는 신선하게 눈에 들어 왔고 청화안료의 사용범위를 넓게 해주었다. 이양재의 힘 있는 필치의 그림은 분원 백자문양의 특성인 청화안료에 농담을 주어 해학적인 문양을 회화적인 느낌으로 잘살려준 예라고 볼 수 있다.

〈백자예찬 : 미술, 백자를 품다〉(2014.4.18~8.31)전은 부암동에 위치한 서울미술관에서 전시되었는데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기존의 도자기 전시보다는 백자를 주제로 한 미술 작품 들이 주를 이룬다. 근현대와 현대 미술가들의 작품 속에 보여 지는 백자 향아리를 작가

²⁵ 『분원백자전 I-조선후기 청화백자』, 경기도자박물관, 2009, 42쪽.

의 표현방식대로 어떻게 작품에 비추어졌는가를 볼 수 있었고 전시는 총 3개의 큰 유형으로 되어 있는데 먼저 ‘백자, 스미다’는 근현대미술가의 작품 속에서 보이는 백자의 형태와 선의아름다움을 되돌아볼 수 있었고 백자의 의미와 상징성을 통해 화가들이 주제로 선택한 높은 안목을 볼 수 있었다.²⁶



도13 백진, A Drop, 8m x180cm x 5cm, 2013년, 전경련회관소장

다음으로 ‘백자, 번지다’는 조선백자의 의미를 현재에 재해석한 회화, 설치 작품들이 전시되어 다양한 재료를 통해 표현된 백자를 볼 수 있었고 마지막으로 ‘백자, 이어지다’는 조선백자의 명맥을 이어가는 장인과 현대 도예작가들의 다양한 도자 작품이 전시되었다. 도예가 작품 중에 신동원의 부조 벽 작업과 백진의 피비우스의 띠를 연상하는 벽장식이 벽면을 꽉 채웠다. 석고판에 슬립을 얇게 부어 일정한 간격으로 자른 뒤 흙의 유연성을 살려 띠를 만들었다. 각각의 띠는 흙의 물성을 살려 흰 상태도 다르고 자연의 순회, 생명의 탄생 등이 연상되는 곡선적인 선에 무시유를 하였다(도13).

그밖에 전통의 명맥을 유지하는 도예가들의 백자향아리는 이 시대에도 조선의 미를 당당히 품어내는 풍만한 볼륨감 속에 과거와 현재의 장인들의 백자의 아름다움을 향한 애정과 열정을 볼 수 있었다. 이미 비슷한 주제인 <화가와 달향아리전>(2009.1.15~2.15)이 갤러리 현대에서 기획 되어 도상봉, 김환기를 비롯해 한익환, 박영숙, 권대섭, 강민수 외 5명의 도예가와 구본창, 강익중 외 3명의 입체평면작가들이 출품하였고 18세기 조선백자향아리도 같이 전시되었다.

한편 도자기와 현대회화를 한자리에 전시하여 한국미의 원형을 엿보려는 시도는 1999년 환기미술관에서 개최된 <백자송>(1999.5.4~7.4)이²⁷ 시작이었다.²⁸ 또한 조선 관요 미술관에서 2003년 <백색의 스펙트럼>(2003.3.12~6.30)전이 열려서 백자향아리의 시각적 존

²⁶ 『백자에찬』도록, 서울미술관, 2014, 참조.

²⁷ 이 전시는 김환기 25주기특별기념전으로 백자향아리를 모티브로한 유화, 과슈, 데생, 사진, 자료 등이 전시되었다.

²⁸ 강재영, 『백색스펙트럼』, 조선관요미술관, 2003, 60쪽.



도14 조정현, 가을의풍요, 높이18cm, 2009년

재감을 느낄 수 있었다. 달 향아리전은 인기 있는 아이템으로 한영 수교 130주년을 기념해 <영국에 온 조선의 달 향아리>(2013.6.18~8.17)전이 주영 한국문화원에서 열렸다. 조선 도자의 아름다움에 매료된 도예가 버나드 리치(Bernard Leach)를 통해서 1935년 달 향아리가 처음 소개되었는데 이 전시를 통해 한국과 영국의 문화 교류의 상징이자 연결고리인 달 향아리를 새롭게

재해석한 전시이며 양국 간 창조적 문화교류뿐만 아니라 경제발전과 번영을 기대한다는 축사도 있었다.²⁹

경기도자박물관의 <새김과 채움: 상감도자특별전>(2011.11.23~2012.3.27)을 보면 새김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억을 쌓아나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과 닮아있다고³⁰ 해석하여 분청, 청자, 백자 등의 유물을 새김으로 넣었고 채움은 확장된 의미의 현대의 상감기법으로 보고 새로운 재료와 방법으로 작업하는 작가의 현대작업으로 해석된 전시였다. 상감은 선상감에서부터 면 상감까지 한국의 전통기법의 다양한 면을 보여주었다. 선상감으로 시작해서 전체 면을 채우거나 다색^{多色}을 사용한 박정홍 작가는 상감을 깊게 새겨나가는 순간순간의 흔적³¹으로 생각했고 주지완은 사각형태의 한 면에 두 가지색의 선 상감을 사용하였고 이런 선들은 시각적인 착시현상으로 표현하였다.

물레성형을 통해 웅기이미지의 형태를 제작하고 고려청자에서 볼 수 있는 상감기법을 통해 한국의 전통적 특성과 정서를 개인적인 현대적 미감과 융합시키고자 노력해왔다고 하는 조정현은 상감이란 표면에 새겨진 생동적인 무늬의 특성을 창조해 내는 것이라 하였다(도14).³² 유물, 전승도자와 현대작가19명과 외국작가 4명의 구성으로 마치 과거와 현재를 한눈에 볼

²⁹ 노은지, 해외문화홍보원, www.kocis.go.kr를 참조.

³⁰ 『새김과 채움』, 경기도자박물관, 2011, 17쪽.

³¹ Ibid, 15쪽.

³² Ibid, 15쪽.

수 있는 전시였다. 또 한국공예문화진흥원 전시장에서 김학균이³³ 기획한 〈상감의 재발견 : Sanggam전〉(2010.12.5~21)은 21명의 국내외 도예가가 전통장식기법인 상감기법을 과거에 두지않고 스스로 재발견하고 현대적 도구와 재료로 재창조하고 다양한 소지의 선택과 변조방법이 소개되었다.³⁴ 두 전시가 같은 상감이라는 기법의 주제로 일부 같이 참여한 작가도 있었고 외국작가들의 참여도 보였는데 그 중 호주의 작가 앤드류 할포드(Andrew Halford)의³⁵ 일본도자의 영향을 받아 전통적인 기법과 서구적인 호주스타일의 결합된 도자작업을 볼 수 있었다.

〈웅성웅성크라프트〉(2013.9.9~30)는 ‘공예에 대하여 말하기’라는 컨셉으로 기존 전시는 제시하는 입장이지만 이 전시는 참여하는 공예가들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직접 작업공간을 재현하고 공예인들의 열린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였다. 3개의 주제로 구성된 전시 중 ‘전통에서 미래를 보다.’는 전통미를 바탕으로 두고 재구성한 도자를 포함한 공예들로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연출했고 이런 작품들이 단지 작품 전시가 아닌 실제 공간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지를 보여주는 전시였다.³⁶ 이지숙, 김화중, 이승희 외 참여 작가 중에 도자작가 한정용은 순백의 백자를 물레로 성형한 후에 면을 깎거나 파면서 형태를 만들어 주고 작가는 과거 조선시대 기물을 쌓아 소성하면서 모래나 규석 받침으로 생긴 흔적에 영감을 받아 바닥부분 장식에도 관심을 기울여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였다.

2. 해외전시

국내전시와 더불어 해외에서도 우리의 공예전시가 주목받았는데 전통과 현대 공예와 더불어 우리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IT기술을 한 눈에 볼 수 있었던 해외전시는 〈Korean Design: Between Modernity and Tradition〉전이다. Finland Design Museum (2011.3.18~5.29) 과 Craft Museum(2011.6.8~12.4)에서 열린 전시로, 큐레이터 안애경을³⁷ 통해 우리 한국공예

³³ Studioin의 디렉터, 독립큐레이터이자 울산세계공예문화엑스포 큐레이터.

³⁴ 김학균, 「전시토포픽」, 『월간도예』, 2011, 참조.

³⁵ 호주작가로 일본에서 5년간 기법을 익히고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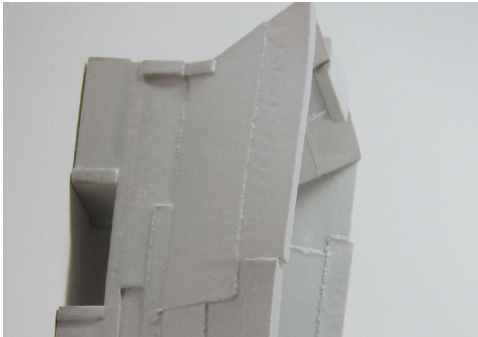
³⁶ 『공예+디자인』, 공예문화진흥원, 2013, No.7, 참조

³⁷ 안애경은 한국과 핀란드를 무대로 양국의 문화를 전시, 소개하는 큐레이터이며 책도 출간했다.

와 문화의 우수성을 핀란드에 알렸다. 아름다운 선을 지닌 한국의 전통 예술과 현대 공예품이 스마트TV와 함께 과거와 현재 앞으로 나갈 미래를 제시하고 발전하는 IT의 기술은 우리의 선조들의 뛰어난 공예적 감각이 전승되어 오늘의 우수한 기술력을 갖게 된 원천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전시였다.

미국의 미래학자 존 나이스비트(John naisbitt)는³⁸ 현대사회가 하이테크화 되면 될수록 그에 비례하여 하이터치의 감성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하이테크는 인간에게 편리하지만 그것만으로 만족되지는 않는데 현대인의 생활세계는 인간적 감각의 세계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³⁹ 그는 “인간이 만든 공예가 로우테크(low tech)의 산물이지만 기계생산물에서 볼 수 없는 인간적 감성인 하이터치(high touch)의⁴⁰ 결정체이며 하이테크와 하이터치의 균형이 이루어진다면 인간에게 편리와 감성을 모두 가져다 줄 것이다.”⁴¹고 언급했듯이 균형자로서 공예의 역할을 보여준 전시이며 2번에 걸친 전시로 많은 수의 관람객들이 방문하는 등 성황을 이루었다.

〈한국공예법고창신〉(2014.4.8~13)전은 이탈리아의 밀라노가구박람회에 디자인워크 동안에 트리엔 비엔날레 디자인전시관에서 열렸던 한국전통공예전이다. 2013년 〈한국공예



도15 이기조, 직사각제기수반, 36x57.5x26cm, 2013년

법고창신>전이 이미 같은 장소에서 열려서 김익영의 도자스톨 즉 청자투각 돈⁴²에서 유래한 도자의자와 권대섭의 달 향아리를 선보였었다. 올해는 도자, 섬유, 한지, 금속, 나전 중에서 도자기에는 백자작가 이기조의 작품도 있었는데 손바닥으로 두드려 만든 점토판의 결합체로 설명할 수 있다. 백자 판을 이어 부쳐 마치 조선의 보자기를 연상

38 존 나이스비트(John naisbitt)는 1929년 1월 15일생으로 Utah 출신이며 앨빈 토플러와 함께 미래학의 양대 산맥으로 꼽히는 세계적인 석학이다. 그의 저서는 ‘메가트렌드’를 비롯하여 ‘메가트렌드 2000’, ‘메가트렌드 아시아’, ‘하이테크 하이터치’, ‘메가 챌린지’, ‘글로벌 패러독스’, ‘미래를 향한 기업 전략’, 등이 있다. www.naisbitt.com 참조.

39 최범, 『공예문화비평』, 한국공예문화진흥원, 2008, 93쪽.

40 고감도(高感度)란 하이 테크의 대극에 있는 인간적인 감성을 말한다. 미국의 미래학자 존 나이스비트가 그의 저서 「메가 트렌드」에서 하이 테크와 하이 터치 현상을 소개했었다. 고도의 기술이 도입되면 될수록 그 반동으로 보다 인간적이고 따뜻함이 유행한다는 것인데, 그와 같은 인간적인 반응을 가리켜 하이 터치라고 부른다. 패션전문자료사전, 한국사전연구소, 1997 참조.

41 최범, 『공예문화비평』, 한국공예문화진흥원, 2008, 20쪽.

42 돈(墩)이란 등받이가 없는 좌구의 일종으로, 동체가 볼록한 원기둥 형태의 좌구를 뜻한다. 한국 도자사에서 자기로 제작된 돈은 고려시대부터 시작되었으며 형태는 대체로 동체를 투각으로 화려하게 장식한 대형 기물이다.

하듯 이어 만든 질감의 면들로 구성된 백색의 구조물로 보이며 조선의 백자를 현대적인 조형물로 변형시킨 것으로 연상된다(도15). 그의 작업은 뉴욕의 크리스티경매에서도 완판이 되었을 정도로 외국에서도 반응이 좋다. 〈한국공예법고창신〉 전시를 계기로 후속 전시가 사우디와 대만에서도⁴³ 개최되었고, 2013년도에는 영국의 Collect에서⁴⁴ 옷칠작가 정해조의 작품이 V&A박물관에 소장 구매되고 올해 Collect에서도 입장 즉시 구매되는 등 공예한류의 기운이 심상치 않다. 이밖에 젊은 작가들은 프랑스의 메종 & 오브제(Maison&Object)와 미국의 SOFA 박람회⁴⁵ 등 다양한 곳에서 전시활동을 하고 있다.

한편 〈법고창신〉(2009.9.23~2010.3.8)이라는 같은 제목의 국내전시가 이미 경기도자 박물관에서 기획되었다. 옛것을 본받아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는 뜻으로, 옛것에 토대土臺를 두되 그것을 변화시킬 줄 알고 새 것을 만들어 가되 근본根本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뜻으로,⁴⁶ 15인의 우리그릇 배우기 프로젝트로 질감, 비례, 문양을 3가지 분야로 나누어 작가들이 고려, 조선시대 대표적 유물을 골라 연구하여 저마다의 방식으로 어떻게 재구성 했는냐가 이 전시의 특징이며 새로운 전통을 볼 수 있었다. 같은 박물관에서 기획한 〈분원백자순회 전 II: 21세기 청화백자〉(2009.4.25~6.21)과 비슷한 형식으로 진행되었고 작가들도 동일한 작가도 있었지만 옛 도자기를 선택해서 비율이나 그밖에 것을 다르게 변형한다는 점은 신선했고 보는 관객도 같이 연구하는 자세와 작업자로서의 입장에서 관람하는 흥미 있는 전시였었다. 그 중 정연택의 작품은 현대적이고 세련된 형태의 조선의 주전



도16 박성욱, 분청분장문사각병, 8.7x9x25cm, 2009년

43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한국공예의 전통과 현재를 선보이는 〈히든 매치-언 익스비전 오브 코리안 크래프트(Hidden Match-An Exhibition of Korean Craft)〉전을 개최했다. 대만에서 열리는 ‘한국공예의 법고창신’전은 대만 측의 요청에 따라 밀라노 전시의 감동을 그대로 되살릴 수 있는 작품과 디자인으로 구성된 전시이다.

44 올해 11주년이 되는 Collect는 영국의 사치갤러리에서 열렸고 국제적으로 엄선된 공예 갤러리들이 참여하는 페어이며 유명 박물관과 갤러리들의 공예품을 구입하는 주요 창구역할을 맡고 있다.

45 Sculpture+Objects+ Functional Art의 약자로 뉴욕과 시카고에서 열리며 최근에는 Santa fe에서도 열린다.

46 『법고창신』, 경기도자박물관, 2010 참조.

자를 완벽히 재현하였고 박성욱은 〈백자소문사각병〉을 선택해서 형태의 차이를 두고 4각의 표면을 완전히 거친 질감과 백분장으로 가공되지 않은 재료같은 느낌으로 표현하였고(도16) 이강효는 분청분장문제기를 재현해서 팔각형태의 귀를 부착하고 겉면의 분장을 통해서 질감을 살렸다.

그밖에 〈법고창신〉의 같은 제목의 전시가 있었는데 이은범은 정소영 식기장과 (2011.11.25~12.5) 세인갤러리에서 (2013.11.12~11.20) 전시를 하였다. 최근에는 이천시립미술관에서 〈예술을 담은 도자기기획전〉(2014.4.25~6.29)으로 신이철 외 5명의 작가가 참여했었고 전시 요체는 법고창신^{法古創新}이며 도자기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현대예술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자 했다.

작가나 전시이외에도 기업에서의 전통의 현대화의 예를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2013년 창립 50주년 기념을 맞이한 광주요는 현대 작가와의 협업으로 새로운 studio라인 ‘결’을 생산했다. ‘결’ 시리즈는 전통의 현대화와 도자기의 생활화를 모티브로 제작되었고, 전반적인 양식은 심플하면서도 삼베나 모시의 결이 연상하는 질감을 느끼게 한다. 이 제품들은 기존 광주요에서 볼 수 없는 단순하면서도 세련되고 색상이 밝아 젊은 층에 좋은 반응이 예상된다.

도예작가는 아니지만 최정유의 웅기시리즈 테이블웨어도⁴⁷ 새롭게 시도되는 디자이너의 작업이다. 그밖에 명품생산을 주로 하는 외국기업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전통을 기반으로 한 수공예적인 요소로 탄생된 명품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이런 명품들이 역사와 수공예적인 것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도 전통의 정신을 살려 트렌드에 맞게 디자인의 연구개발을 꾸준히 해왔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그만큼 전통은 우리가 안고가야 할 과제이며 미래이다.

IV. 결론

지금까지의 연구를 통해 최근 전통을 재해석한 작품과 전시들의 경향과 특징 그리고 전시유형에 대해 살펴보았다. 국내외에서 다양한 전시가 열렸고 주목을 받았는데 그 중 〈백자

⁴⁷ 최정유는 디자이너이며 웅기와 백자 흙을 배합하여 흙색을 선택했고 제작은 도예가가 제작한 협업작업이다. 〈From museum to home〉컨셉으로 삼베에 레진을 부어 제작한 〈삼베트레이〉는 소재를 변형해서 현대적으로 해석한 상품이다. 공예문화진흥원.

예찬: 미술, 백자를 품다>전에서는 기존 도자기 전시와는 달리 백자를 주제로 한 회화, 설치 작품, 도자기들을 같이 전시함으로써 재료와 표현의 차이는 있지만, 이를 통해 한국도자의 미의식과 정신을 재발견 할 기회를 제공하였다. 국내외적으로 <법고창신>이라는 제목을 사용한 전시가 가장 많았는데 옛것을 본받아 새로운 것을 창조^{創造}한다는 의미 데로 작가들이 전통에 대한 각각 다른 해석으로 새로운 전통을 표현하였다. 또 최근 전통을 기반으로 한 전시들은 이전과는 다른 전시구성과 디스플레이방식으로 전시대 위에 작품을 전시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에 충실한 공예의 기본 개념에 가깝게 연출하기위해 생활공간인 주거공간을 그 대로 전시장에 옮겨 놓았다.

한편으로 해외전시는 전시종료 후 해외연계전시로 이어져 외국인에게도 주목을 받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체험할 수 있었다. 이밖에도 기업이나 여러 분야를 통해 우리의 옛것을 찾아보려는 움직임도 피부로 느낄 수 있는데 ‘우리의 것-전통’에 대해 관심을 갖고 다시 되돌아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또 작가들의 독특한 기법, 재료, 작품을 해석하는 방식 등 다양한 양상의 예를 볼 수 있었고 이런 작가들의 노력으로 좋은 작업들이 창작되어 국내 전시와 국제전에서 좋은 반응을 얻어 도자를 포함한 공예분야의 대중화와 한류의 움직임이 일어나기를 기대한다.

전통이란 그 시대상황과 접목될 때라야 생명이 유지되고 다른 것과의 조화에서 새로움을 얻는다.⁴⁸고 했듯이, 옛 것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영감을 주는 근원이며 과제라 볼 수 있다. 이런 전통과 더불어 한국도자의 우수성과 예술적 가치를 알리고 나아가 연구되어지기를 바란다. 전통과 현대의 시대적 간극을 줄이고, 시간을 초월한 조화로운 결합을 찾아 이를 문화콘텐츠로서 제시한다면 우리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더불어 현대사회는 고도로 발달된 첨단시대를 지향하고 있음으로 더욱더 인간의 정서적인 공감을 느낄 수 있는 감성적인 부분을 필요로 한다. 로테크 (Low Tech)적인 손으로 만든 오늘날의 도자를 포함한 공예들이 올바른 기능과 감성의 융합을 형성하여 잠재된 공예의 또 다른 가치를 찾아가길 바란다.

48 임무근, 『한국현대도예30년』, 국립현대미술관, 1994, 35쪽.

단행본

- 강경숙, 『한국도자사』, 예경, 2012.
권상호, 『공예재료와 기법』, 태학원, 2003.
김정필, 『한국문화의 조형』, 재원, 2008.
이희승 『국어사전』, 민중서림, 1982.
임무근, 『한국현대도예30년』, 국립현대미술관, 1994.
최 범, 『공예문화비평』, 한국공예문화진흥원, 2008.
H.Read, 『예술이란 무엇인가』, 을유문화사, 1992.

논문

- 김진아, 「한국 현대도예 전시의 특성과 유형분석 연구 : 1980년대 이후 열린 도예전시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김수진, 「한국 현대도예의 성립과 그 발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박종진, 「업다지기법을 응용한 도자조형 연구」, 국민대학교대학원, 2008.
유의정, 「문화변용을 소재로한 도자조형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9.
윤주철, 「도자표현을 위한 장식기법의 개발연구-침장기법에 대하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도록

- 『새김과 채움』, 경기도자박물관, 2011.
『백색스펙트럼』, 조선관요박물관, 2003.
『분원백자전 I-조선후기 청화백자』, 경기도자박물관, 2009.
『분원백자전 II-21세기 청화백자』, 경기도자박물관, 2009.
『한국공예의 법고창신』, 한국공예문화진흥원, 2013.
『한국공예의 법고창신』, 한국공예문화진흥원, 2014.
『한국의 생활도자100인전』 릴레이기획초청전-이창화, 글씨미디어, 2013.
『Hot Rookies』, 도자재단, 2013.

잡지

- 김학균, 「상감의 재발견: Sanggam」, 『월간도예』, 2011년 1월호.
『공예+디자인』,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2013, No.7.
『공예+디자인』,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2014, No.9.

신문

김선권, 〈컬덕을 만들자〉, 『중앙일보』, 2014, 6월13일, B10쪽.

웹사이트

www.claypark.net, 홍대도예연구소

www.kcdf.kr, 공예문화진흥원

www.museum.go.kr, 국립중앙박물관

www.sonoann.org, 안애경